2026.11.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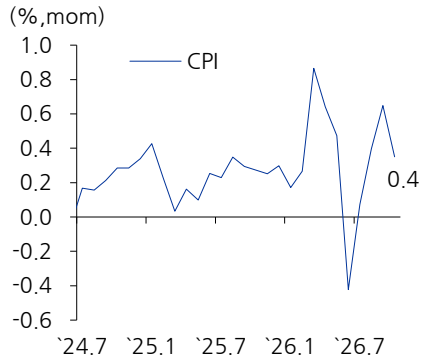
Global Economy

경제/자산배분 방인성(PhD)
6145 / isbang@eugenefn.com

10 월 물가: 근원 +0.3%, 12 월 인상 확률 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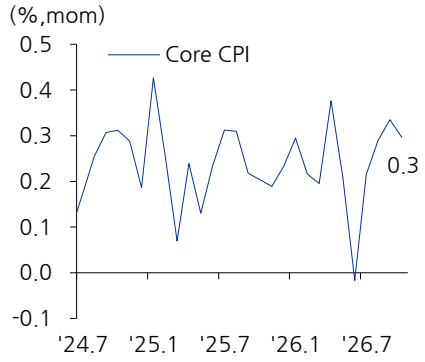
- 미국 **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+0.4%(예상 +0.3%), 근원 물가는 +0.3%(예상 +0.2%)로 시장 예상을 0.1%p 상회. 근원 물가는 3개월 연속 +0.3%를 기록함**. 전년 동월 대비는 2025년 10월 셧다운으로 기준치가 없어 미발표, 계절조정 전 지수 기준 추정치는 +3.7% 내외로 9월과 동일. 헤드라인은 에너지 둔화로 9월(+0.6%)보다 낮아졌지만 예상은 또 상회.
- 에너지 +0.7%(9월 +5.2%), 휘발유 +1.0%로 충격은 진정된 반면 식품은 +0.5%(9월 보합)로 반등. 식료품 +0.4%(쇠고기 +0.9%), 외식 +0.5%로 에너지·운송비의 2차 파급이 확인됨. 주거비 +0.3%(OER +0.3%, 임대료 +0.2%)로 헤드라인 상승분의 30% 이상.
- 근원 서비스 +0.3%: 교통서비스 +0.8%(자동차보험 +0.7%), 여가 +0.8%, 의료 +0.3%(병원 +0.8%), 교육 +0.3%로 범위가 넓음.
- 근원 상품 +0.2%: 중고차 -1.2% 하락에도 신차 +0.2%, 의약품 +0.5% 상승. 중고차를 제외하면 근원 물가는 +0.4%에 가까워 9월보다 내용은 나쁨.
- **근원 3개월의 연율화 수치는 +3.7%**, 6개월 연율 +2.6%. 에너지 기여도가 9월 0.36%p에서 0.05%p로 급감했으나, 식품(0.07%p)과 근원(0.24%p)이 그 자리를 메움. 에너지 충격의 2차 파급을 10월 데이터로 확인.
- 연준은 10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(3.75~4.00%)했으나, CPI 발표 전 **월러 이사가 '근원 +0.3% 이상이면 12월 빅스텝(50bp 인상) 고려'**, 로건 총재는 '최소 2회 추가 인상'을 언급함. 시장은 연준의 12월 인상 확률을 100%(25bp 88.5%, 50bp 11.5%)로 기정사실화함.
- 12월 25bp(4.00~4.25%)를 기본으로, 50bp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. 1) 미·이란 공격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 기대로 브렌트유는 $90 내외로 급락, 11월 휘발유 하락이 헤드라인을 끌어내림. 2) 10월 고용 +16.5만, 실업률 4.1%로 견조하나 임금 둔화세로 실질 임금은 여전히 마이너스임.
- **10월 PCE(11/25)는 전월비 근원 +0.3%, 전년비 3.1~3.2%로 CPI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**됨. 12월 근원 CPI +2.7~2.8% 전망은 유지하되, 헤드라인은 유가 급락을 반영해 +3.8~4.0%에서 +3.4~3.6%로 하향. 방향이 '상방'에서 '둔화'로 바뀐 것은 전적으로 유가 요인이며 근원 물가는 변화가 없음.
- 유가 하락이 헤드라인을 낮추더라도 근원 +0.3% 고착은 12월 인상 이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요인. 인상 사이클의 종료는 근원이 +0.2% 대로 내려올 때만 가능, 그 전까지 연준은 대응성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함.

10월 헤드라인 물가는 전월 대비 +0.4%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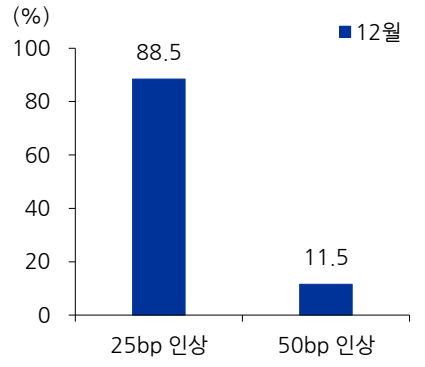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근원 물가는 3개월 연속 +0.3% 상승
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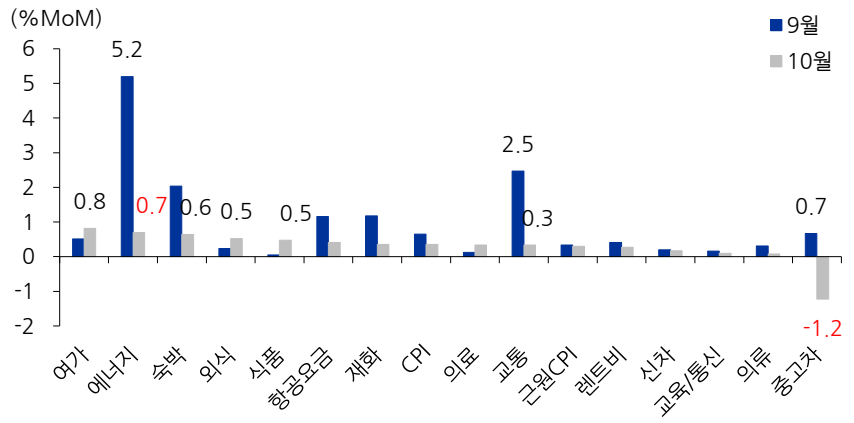
12월 인상 100%, 50bp 인상 확률 11.5%



자료: CME FedWatch, 유진투자증권

유진투자증권

주요 품목별 전월 대비 상승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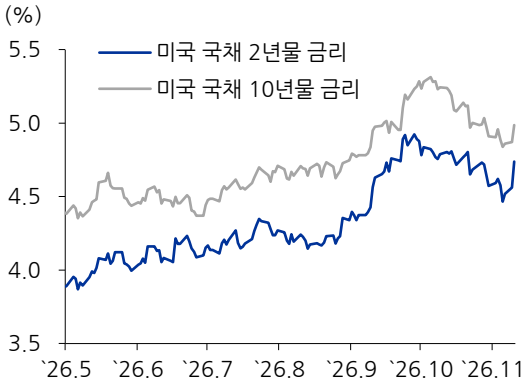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미국 휘발유 가격은 아직 4 달러 상회



자료: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10 월 CPI 발표 후 금리는 상승



자료: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